

캐나다 연합교회의 한국인을 위한 연합교회 안내서



김혜란, 돈슈와이처 편집
양태일, 조광범, 신평식 번역
현선도 번역 감수

캐나다 연합교회

캐나다 연합교회의 한국인을 위한 연합교회 안내서

(연합교회 주요 문서 한국어 번역본)

An Introduction to The United Church of Canada
for Korean Speaking Members

(Translations of key texts into Korean with introductions and commentary)

김혜란, 돈슈와이처 편집

양태일, 조광범, 신평식 번역

현선도 번역 감수

차례

서론 · 7

감사의 글 · 11

1장 · 교회로의 상황과 교회로의 부르심 · 13

소개 / 발췌 / 해설

2장 · 교회 연합을 위한 공동위원회 역사적 선언서와

Chown 목사의 연설 · 31

소개 / 발췌 / 해설

3장 · 믿음의 노래 · 47

소개 / 전문 / 해설

4장 · 문화상호적인 목회: 변화 속에서 살아가기 · 89

소개 / 발췌 / 해설

결론 · 101

서론

이 책자는 캐나다 연합교회 내 한국인을 위한 교육안내서입니다. 2012년 1월, 사스카툰Saskatoon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스 신학대학원St. Andrew's College에서 열린 "캐나다 연합교회의 역사, 신학, 그리고 치리"라는 제목의 수업에 4명의 한국인 목회자가 참석했습니다. 이 수업은 M.Div. 필수 과목인 동시에 연합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수업입니다. 이 기간에 한국인 학생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모임에서 이들 목회자는 본 강의 자료의 일부가 한국어로 번역된다면 캐나다 연합교회 내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좋은 교육자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한국인 교인들에게 캐나다 연합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캐나다 연합교회 내 한국인 목회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거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견이 수렴되어 2013년 1월, 이들 중 3명의 목회자가 다시 세인트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에 모여 이 책자에 수록될 문서들에 대해서 배우고 토론하면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각 문서에 대한 소개와 해설은 이후 던 슈바이처Dr. Don Schweitzer 교수와 김혜란Dr. HeyRan Kim-Cragg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가 다른 문화와 신앙풍토를 가진 한국인 교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문서들은 연합교회의

역사와 신앙, 직면한 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활동들을 보여줍니다. 각 문서 앞에 나오는 '소개' 부분은 문서가 생겨난 배경과 중요성을 설명해 줍니다. 각 문서 뒤에 나오는 '해설' 부분은 각 문서가 담은 내용을 분석하고 때로는 비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자들은 연합교회가 지난 역사 속에서 복음과 그들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개와 해설은 이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이 작업을 시작한 소그룹에서 나온 의견들이 어떻게 미래를 향한 연합교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이 안내서에 담긴 문서는 연합교회의 역사와 정신,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1장의 두 문서는 2009년에 나온 것으로, 현 연합교회를 진단합니다. 2장의 두 문서는 역사적인 제1회 총회에서 나온 것으로, 연합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설명합니다. 3장 믿음의 노래A Song of Faith는 연합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주는 최근의 신앙고백이자 신앙선언입니다. 4장의 문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으로, 연합교회가 문화상호적인 intercultural 1) 교회로 나아가는 상황에 대한 진단, 점검,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는 보통의 역사적 기술방식 대신, 배움과 반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현재의 교회 상황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즉,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연합교회 전체를 조명하고 미래를 향한 정체성을 되새기려는 의도적이고 해석적인 작업입니다.

이 책자는 현재 연합교회의 교단 정체성denominational identity에 대한 입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캐나다 기독교인들에게, 교단의 정

체성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연합교회에서 목회하는 한국인 목회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연합교회가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복음을 해석하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섬기는 연합교회의 한국인 교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원합니다. 연합교회의 정체성에 특별한 관심을 둔 이들 한국인 목회자 그룹은 캐나다 연합교회의 여러 면에서 신앙형성(faith formation) 부분이 빈약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연합교회의 삶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기독교 교육과 친교 프로그램 등의 비중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연합교회는 감소하는 교인 수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 신앙형성에 이전처럼 노력과 시간을 쏟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지만, 대체로 최근 수십 년간 교인 수의 감소와 재정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적절한 예를 들자면, 이들 한국인 목회자 그룹이 속했던 교단은 한국에서 비교적 작은 개신교 교단 중 하나입니다. 이 교단은 현재의 캐나다 연합교회보다도 교인 수와 재정 면에서 훨씬 작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교인 수와 작은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은 기독교 교육과 신앙형성에 현재 캐나다 연합교회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숨은 배경을 살펴보면, 그 중 하나는 이 교단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이 속한 사회가 종교 다원적인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소수라는 교단 현실과 종교 다원적인 사회 상황이 자신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신앙형성에 노력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한인 목회자들이 수업시간에 나

누며 캐나다 연합교회가 앞으로 개선하기를 바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연합교회의 정신을 배우고 익히기 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캐나다연합교회 신앙형성을 더욱 강화하고 두텁게 함으로써 연합교회의 정신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 책자는 바로 이러한 노력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감사의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감사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써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이 소책자를 만드는 과정을 도와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 총회 본부National church에서 Responsive Initiatives Grant를 통해 재정을 지원해서 한국 목회자들이 이번에 번역할 자료들을 연구하기 위해 세인트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금을 받도록 승인해 준 총회원들과 총회 선교기금Mission & Service Fund 등 교단의 모든 협력에 감사 드립니다. 장소와 숙소,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 세인트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 소책자 안내서는 부지런한 공동작업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공동 작업을 해 주신 양태일, 조광범, 신평식 목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분들은 닷새 동안 강의실에 앉아서 자료들을 열심히 토론하고 번역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도 남은 부분의 번역을 마쳤습니다. 번역된 모든 자료의 교정을 맡아 준 현선도 목사께도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출판을 맡아준 한국 대장간 배용하 대표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합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 세계를 위한 연합교

회가 되도록 일하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책자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독교 교육과 신앙 형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축복하소서. 아멘.

1장 · 교회의 상황과 교회로의 부르심

소개

캐나다 연합교회는 192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966년까지는 교회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966년 이후로 교회회원 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략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연합교회는 내적으로 남녀 간 성 차별과 성적소수자 문제 그리고 원주민과의 관계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개혁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다른 한편 외적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과 핵무기 반대, 인종과 환경문제 등의 사회정의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회원수의 감소는 1990년대에 들어서 연합교회의 선교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더는 무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캐나다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위치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연합교회가 태동했을 당시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선량한 캐나다 시민이라면 누구든 연합교회 같은 개신교 교회에서 자라며 교회로부터 도덕적 가치관을 배울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캐나다인이 되거나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더는 종교생활이 중요한 측면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선택하는 것이 되었고, 만약 어떤 사람이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 외에도 다른 많은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

다 문화의 이런 변화는 때때로 캐나다에서 국교國敎와도 같았던 기독교가 그 위치를 상실한 것the dis-establishment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연합교회의 주요한 지침이 되는 비전은 연합교회가 태동했을 당시에 존재했던 기독교 중심의 사회문화적인 전제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사라지고 교회회원 수의 감소가 공동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후, 사람들은 연합교회의 비전이 없어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의 두 발췌문은 2009년에 개최된 연합교회 제40회 총회를 위해 마련된 문서인 “교회의 상황”과 “교회로의 부르심”에서 가져왔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총회 차원에서 교회의 개관을 제공하고, “교회로의 부르심”은 하나로 연합교회의 비전을 통합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문서들은 연합교회가 현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교회의 상황” The State of the Church에서 발췌 2)

우리의 신학Our Theology

캐나다 연합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시간과 공간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계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로서 우리 존재의 구조를 이루는 것은 공동체 삶의 기초로서 늘 신학적 반성에 전념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각 세대를 위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분명히 밝히려는 우리의 의지에서도 드러납니다.

연합교회는 1925년 연합의 원리Basis of Union를 이루는 신앙의 20개 조항에 그 신학적 기초를 놓았습니다. 1940년 “신앙선언”A Statement of Faith, 1968년 “우리의 신조”A New Creed, 그리고 2006년 “믿음의 노래”A Song of Faith도 이러한 토대 위에서 그 문서들의 특정한 시간과 상황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학선언이 전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보고서와 정책, 실천을 형성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새로운 교과과정』The New Curriculum이라는 주일학교 교재를 발간하면서 당대 성서신학을 교회교육과 연결했습니다. 이외도 “예수님의 주권”The Lordship of Jesus, “성서의 권위와 해석”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당신을 위한 장소”A Place for You: 교회생활에서 아이들의 온전한 참여를 위한 비전 제공과 같은 문서들은 교회의 폭넓은 신학적 탐험의 진전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우리는 ‘신조를 기본으로 세워진 교회’ a creedal church가 아닙니다. “연합의 원리”The Basis of Union(8.6.2)는 “온전한 교회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신약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합교회는 역사적인 신조들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교회회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들은 신약성경에 기반을 둔 내용입니다. 우리의 비 신조적 정체성non-creedal identity은 또한 연합의 원리11.2 가운데 “본질적인 동의에 따라서”in essential agreement라는 문구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교회가 지정한 교리의 모든 상세한 내용에 동의하기보다는 연합교회의 교리선언문the Statement of Doctrine에 대한 “본질

적인 동의”를 하면 됩니다.

연합교회는 언제나 사회적 상황에 주목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회 가운데 현존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신학적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서 우리는 교회의 선교와 사역에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포함하는 것을 하는 중요시하는 신학들을 전개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몇 가지 주요 결정들이 수년 동안의 치열한 토론과 신학적 논쟁을 가져왔지만 (예를 들면, 여성 목회자 안수, 이혼자들의 수용, 목회자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측면에서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은사를 긍정하는 것과 동성결혼 승인 등), 신학적 성찰이 이 모든 논쟁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교회의 신학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 시대의 현실에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신학적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합니다.

- 원주민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구축하는 것
- 선교협력partnership의 의미와 전 세계 협력자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유대인과 이슬람 전통과의 종교 간 탐구를 강화해 나가는 것
- 문화상호주의interculturalism와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복음의 비전을 촉진하는 것
- ‘제국’ empire 한가운데서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나타나시는 성령’ the Emerging Spirit 프로젝트는 연합교회가 놓칠 수 있는 젊은 캐나다인^{30-40대} 그룹에게 다가가는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처한 시대와 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evangelism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많은 도전적인 신학적 질문들도 생겨났습니다: “소셜 네트워킹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의 상황: 캐나다 Our Canadian Context

캐나다는 문화와 인구분포, 종교 면에서 다양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16%가 이른바 소수민족 visible minority에 해당합니다. 캐나다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외국에서 태어났고, 이 비율은 지난 75년 동안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06년 인구조사에서 200개 이상의 다른 인종이 캐나다에 사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가장 최근 조사인 2001년 인구조사에서, 1991년과 2001년 사이에 캐나다로 이주한 17,500명 중 1,800,000명이 자신을 연합교회 교인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작은 비율이지만, 한편으로 연합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최근 이민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1년 캐나다 통계청 Statistics Canada이 보고한 주요 종교인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톨릭 Roman Catholic	12,793,123	43.2%
종교 없음 No Religion	4,796,325	16.1%
연합교회 United Church	2,839,125	9.6%
성공회 Anglican	2,035,495	6.9%
침례교 Baptist	729,475	2.5%
루터교 Lutheran	606,590	2.0%

1991년과 2001년 동안:

- 자신을 가톨릭 또는 개신교인으로 응답한 사람 수는 80%에서 72%로 감소했습니다.
- 가톨릭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비율로는 45%에서 43%로 감소했습니다. 12,800,000명
- 개신교가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비율로는 역시 35%에서 29%로 감소했습니다. 8,700,000명 개신교인 수의 감소는 6개의 가장 큰 교단들에서 나타났습니다. 단지 침례교인만 이 기간에 10% 증가했습니다. 다른 개신교단들 가운데는
 - 장로교가 가장 많이 감소하여, 교인 수 409,800로 36% 줄어들었습니다.
 - 오순절교회 Pentecostals는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하여, 교인 수 369,500로 15% 줄어들었습니다.
 - 연합교회의 교인 수는 2,800,000명으로 8% 감소하였습니다.
 - 성공회 Anglicans는 2,000,000명으로 7% 감소하였습니다.

- 루터교Lutherans는 606,600명으로 5% 감소하였습니다.

· 한편,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수는 12%에서 16%로 증가했습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수는 캐나다 전체에 걸쳐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1986년과 2001년 사이에:

· 나이가 15세 이상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수가 28%에서 20%로 감소했습니다.

· 성인들 가운데 통계조사 이전 12개월 동안 종교의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수가 26%에서 43%로 증가하였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교회는 단지 12교회로 매우 작은 비율이지만, 다른 한편, 연합교회의 전반적인 풍토가 퀘벡 지역의 사회적 의식과 가장 잘 맞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연합교회는 프랑스 문화 지역French Canada에서의 연합교회 목회와 사역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합교회와 목회사역이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문화와 인종에 관련한 인구분포 변화는 연합교회가 더욱 다양하고 문화상호적intercultural으로 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하고도 도전적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 통틀어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괄목할 만한 문화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합교회가 이러한 변화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연합교회는 캐나다 사회에서 갈수록 뒷걸음질치는 부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구적 상황 안에서 본 연합교회 Our Church in a Global Context

연합교회는 지구적 상황에 응답하여 믿음을 실천해온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현재 연합교회가 담당하는 선교와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명의 국외선교 동역자들을 9개국에 있는 국외 파트너 단체에 파송하는 일
- 13개의 국외 에큐메니칼 파트너 단체들과 협력하여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 23개국에 있는 150개의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의 선교 목적을 실천하는 일; 이러한 연대활동은 교단별 파트너들과 에큐메니칼 또는 종교 간 협력 단체들, 개발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을 포함하는 일
- 캐나다에 있는 에큐메니칼 단체와 종교 간의 협력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하여 지역과 나라, 세계적인 사회정의 문제에 협력하는 일
- 국외 파트너들이 캐나다로 와서 연합교회와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
- 이 시대의 복잡한 사회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배우고 분석하며 신앙양심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일
- 연합교회 회원들이 선교적으로 중요한 국제적인 모임이나 국내 활동에 교회를 대표해서 참석하도록 지원하는 일

연합교회가 국외 파트너들과 맺는 관계는 상호존중, 상호이익, 신뢰,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또한 하나님의 선교가 각 지역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의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연합교회의 신념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온전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연합교회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구조적인 불의 injustice에 도전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세우는 것이 연합교회가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2008년 선교협력활동 보고서the Partnership Report는 이러한 협력관계에 연합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특별히 각 교회가 참여하는 길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연합교회는 국내외 에큐메니칼 단체들과 종교 간 협력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또한 세상을 치유하는 모든 종교인의 온전한 에큐메니칼 정신을 추구하는 일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연합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교회공동행동Action by Churches Together, 세계개혁교회연맹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이웃종교와의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합교회 소속 개교회들과 사역들 Our Congregations and Ministries

연합교회에는 캐나다와 버뮤다에 걸쳐 2,253개의 목회지pastoral charges에 총 3,362개의 개교회congregations가 있습니다. 이 중 60개는

원주민 목회교회 및 공동체이고, 46개는 소수민족 교회들이며, 12개는 프랑스어권 연합교회입니다. 또한, 300개의 지역사회 선교단체와 15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회로 부르심(Called to Be Church)”에서 발췌³⁾

A. 현재의 도전과 과제

지난 몇 년 동안, 총회와 실행위원회는 '교회의 삶과 선교에 초점을 맞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20여 년 동안 들어왔던 요구들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총회 상임위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은 그동안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 계획과 예산을 세우는 일에서 명료하지 않다는 불만을 나타내왔습니다.

B.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

캐나다 연합교회로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목적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교회가 캐나다와 전 세계에 이바지할 만한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는 연합교회의 “우리의 신조”(A New Creed)에서 온 문장입니다. 이 신조는 또한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 받았습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소명은 아래와 같이 되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 사람들의 영spirits을 살찌우고 힘을 북돋아주는 곳, 믿음을 공유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곳;
-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저항”하는 곳,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사는” 곳, 그리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지만, 어려움에 부닥쳤거나 동지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하고,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고,
-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사역을 통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곳;
-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자유롭게 허락되는 곳

2006년 제39회 총회에서 채택된 “믿음의 노래” A Song of Faith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교회”에 대해 노래합니다. 이런 교회는 “다름과 같은 목적을 가진 교회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위로받고, 모든 이의 선함을 위해 은사를 나누며,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세력들에 저항하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폭력에 맞서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

고, 공동체원들이 바르게 세워주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붙들려 기운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창조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서 통찰력이 있고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함으로써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C. 연합교회로서 우리의 이야기

캐나다 연합교회는 대담한 입장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36년에 처음으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1950년대 말까지도 결혼한 여성에 대한 목사 안수는 허용되지 않았고, 1988년이 되어서야 총회가 성 정체성sexual orientation이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1986년에 연합교회는 캐나다 원주민들First Nations에게 그들 영적 전통 안에 내려오는 진실성을 존중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교회이름으로 역사적으로 행했던 식민화와 파괴적이고 우월주의적 태도들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원주민 기숙학교Indian Residential Schools 운영에서 연합교회가 자행했던 역할에 대해 다시 사과함으로써 좀 더 심화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선교는 모든 이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사gifts를 함께 나눔으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공동체를 이루는 파트너십 관계에 기초합니다. 연합교회는 인종차별racial justice과 양성평등gender justice의 영역뿐만 모든 가족형태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련한 연합교회의 유산들과 적극적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연합교회는 각 세대를 위한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분명하게 밝히는 일에 전념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1940년 “신앙선언” A Statement of Faith과 1968년 “우리의 신조” A New Creed, 그리고 2006년의 “믿음의 노래” A Song of Faith 등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고, 이런 신앙고백서들은 1925년에 만들어 “연합의 원리” Basis of Union의 교리적 부분을 다룬 20개 조항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연합교회의 신앙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표현re-expression들은 다수의 신학적인 선언문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서의 권위와 해석”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은 성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고 모든 인류와 창조세계를 아끼고 사랑하도록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신성한 책으로써 우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일깨워줬습니다. 이 신학 선언문은 또한 성서가 우리의 신앙과 실천에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literally 읽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은 책으로서의 성서the Bible보다 훨씬 크고 넓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신학적인 확신들은 전 세계적 교회일치운동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와의 관계를 명시하는 문서들을 채택함으로써 다른 종교전통을 존중하는 연합교회의 역사적 자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연합교회 전 역사에 걸쳐서 연합교회는 제도적인 노선institutional lines을 따라 교회를 조직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기관institution

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모인 사람들 자체가 “교회”가 되어서 신실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인식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나 또한 연합교회는 제도들(institutions)이 교회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교에 응답하는 일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2008년 6월 토론토에서 열렸던 협의회(the More Franchises than Tim Hortons Conference)에서, 교회사 학자인 임마누엘 신학교 Phyllis Airhart 교수는, 그동안 연합교회 내에 “질서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적인 요구(institutional demand)와 다른 한편 조직화(being organized) 되는 것에 반대하는 영적인 갱신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에 대한 긴장이 있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연합교회는 풍부한 역사와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헌신적인 지도자들과 구성원들 그리고 재정적 자원을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물론 현재 적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긴 하지만, 연합교회는 상실의 위기로 보기보다는 기회로 여기고자 합니다. 교회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연합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비전과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존재해온 어떤 교회이든, 또 다른 기존의 단체들이 공통으로 갖는 특징들을 보면 굳어진 관료주의, 조직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려는 욕구, 그리고 세계 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중요성을 더욱 의식하는 등의 습성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캐나다 연합교회에도 존재합니다.

동시에 연합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습니다. 연합교회 대부분이 “만약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연합교회는 앞

으로의 사역에 대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연합교회는 어떻게 연합교회의 과거와 현재로부터 앞으로의 비전과 목적을 이끌어내서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드러내는 도전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D. 하나 되는 unifying 비전에 대한 우리의 열망

2007년 5월 총회 실행위원회는 총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목적에 대한 요구” Call to Purpose를 확인하는 안건을 채택하고,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에 우선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1. 목적의식을 가진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경험을 심화시키는 일; 우리에게 익숙한 일들과 관심을 넘어서 우리를 확장시키는 일;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위한 목회에 특별한 관심을 두는 일; 문화상호적인 intercultural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창조세계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일
2. 회중중심적인 목회들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일
3.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
4. 원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상처 brokenness에 대처함으로써 치유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일

개교회 교인들과 노회와 연회 등으로부터 받은 의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는 위에서 말한 우선적인 일들과 함께 사회정의 social justice를 위

해 전념한다는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David Giuliano 총회장은 주어진 삼 년 동안 이러한 주요 사업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이처럼 말했습니다:

- 지역 개교회 안에서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선교와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기본적인 일
- 선교와 목회를 위한 뛰어난 지도력을 길러내는 일
- 청소년과 젊은 세대 young adults를 위한 목회의 제한을 풀어주고 포용하는 일
- 원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계속해서 치유하는 일
- 문화상호적인 교회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실천하는 일
- 지구 생태계와의 관계에서 정의를 행하는 일

총회 실행위원회는 이렇게 우선적인 주요 활동들을 지정함으로써 이전에 제기되었던 비판, 즉 비전과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계획과 예산심의 등에 대해 명확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 응답했습니다. 이런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긍정과 더불어 비판도 있었습니다. 주요한 자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보고서가 언급하기를, 우리 가운데 연합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확신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개교회와 노회, 연회 등의 각 단위 안에서 그리고 단위들 사이에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지역 개교회와 총회 사무국 the General Council Office 사이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긴장은 모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하

고도 성취할 수 있는 공유된 비전을 세우는 일과 함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2009년 제40차 총회는 교회로서 우리의 비전과 목적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하고 진솔한 토론을 통해서 더 큰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하는 기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모두를 위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반드시 정하고 그 일에 헌신할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9년 제40차 총회에서 함께 깨닫고 숙고해볼 질문들을 제시하면서, 연합교회 모든 구성원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비전과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통찰은 “목적으로의 부르심” Call to Purpose 안건으로 시작된 대화를 다음의 질문을 하면서 지속하고 심화시키고자 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의 태동 이후 세 번째 세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목적이 연합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지를 묻는 “목적으로의 부르심” Call to Purpose으로부터 어떻게 “하나 되는 연합교회의 비전” unifying vision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전이 어떻게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잊지 않음과 동시에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 a)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
- b) 서로 좀 더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간절함
- c) 우리 자신의 허물과 고통, 두려움에 대한 인정
- d) 우리의 영성과 예언자적 목소리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고 한 몸 안에서 실현된다는 신념

해설

교인들의 감소와 사회적 지위 하락,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는 많은 캐나다 교회들, 특히 1960년대까지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성공회, 장로교, 그리고 연합교회에 “상실/실패의 담론” (discourse of loss) 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위의 두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교회로의 부르심”에서는 현재 연합교회는 “모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하고도 성취할 수 있는 공유된 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실감 일부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975년까지는 연합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합교회가 캐나다를 대표하는 국가적인(national) 교회라고 불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성장할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른 교단과의 연합을 통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캐나다 사회의 변화는 이 비전을 점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1975년 성공회와의 연합을 위한 논의가 결렬되자, 이러한 비전은 더는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연합교회 안팎에서 많은 활기찬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 문서에 나타난 상황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연합교회는 이제 국가대표적인 교단이 되려는 것에서 벗어나, 아직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장 · 교회 연합을 위한 공동위원회 -역사적 선언서와 Chown 목사의 연설

소개

1925년 6월 10일에 있었던 캐나다 연합교회의 설립은 약 20여 년간의 오랜 협상과 논의, 교회의 여러 절차, 그리고 정부 차원의 조처와 법적인 중재 등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장의 첫 번째 문서는 제1회 총회 General Council의 회의록the Record of Proceedings 57-62쪽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연합교회의 공식적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기에 이 안내서에 포함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도 위의 회의록에서 발췌한 것으로, 사무엘 드와이트 차운Samuel Dwight Chown목사가 연합교회의 첫 번째 총회장을 선출하는 시간에 했던 발언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감리교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첫 연합교회 총회장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소수였던 장로교에 그 권한을 양보했던 그의 발언은 첫 번째 총회에서 있었던 중대한 일 중 하나로서 겸손함과 더 큰 미덕을 추구하는 사려 깊은 판단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교회 연합을 위한 공동위원회: 역사적 선언서에서 발췌⁵⁾

캐나다 연합교회의 설립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에 대한 부분적인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50여 년 전에 캐나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연합Union에 대한 예언자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1874년에 영국 성공회 The Church of England in Canada 퀘벡 주교회the Diocesan Synod는 연합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같은 해에 온타리오와 퀘벡의 회중교회연합The Congregational Union은 의장인 Enoch Barker 목사의 연설을 귀담아 들음으로써, 회중주의Congregationalism에 대한 성서적 원칙을 지키고 동시에, 교회의 연합에 대해 “언제든 기회가 된다면 힘써서 이루어야 할 목표”로 인식하고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을 향한 오랜 노력은 1875년 캐나다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의 설립을 가져왔고, 단지 그 자체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캐나다의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는 더 큰 틀의 연합을 내다보며 희망했기에, 장로교의 연합을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한 단계로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퀘벡의 John Cook 박사가 1875년 6월 15일 새롭게 출범하는 장로교의 총회장직을 수락하는 연설에서도 설득력 있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장로교회의 설립이라는 복되고 경사스런 지금의 모습도 앞으로 다가올 캐나다 교회들의 더 큰 연합에 비하면 그리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875년 통합 이전에 더 일찍이 여러 장로교 지도자들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캐나다 교회들, 특히 감리교회도 위와 같은 유사한 통합과정을 거쳤고, 더 큰 연합에 대한 비슷한 충동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감

리교회 연합Canadian Methodist Union은 1884년에 이뤄졌습니다. 이듬해에 영국 성공회 캐나다 지방연회the Provincial Synod of Canada of the Church of England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 연합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양쪽 교회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다. 1888년의 회의는 Caven 박사를 의장으로 하는 연합위원회Union Committee를 임명했습니다. 1889년 4월 토론토 Association Hall에서 이들간의 중요한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매우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첫 번째 교회연합 회의에서, 성공회가 최근 신앙과 정체성의 원리로 선언한 the Lambeth Quadrilateral에서 밝혔던 감독/주교제도episcopate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수용하기 어렵겠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로써 연합을 향한 첫 단계는 감독/주교제도가 없는 교회들에서 좀 더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1887년에 회중교회는 연합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재확인했습니다. 1890년 장로교 Grant 박사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거의 연합corporate Union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1892년에 장로교 총회 대표단이 회중교회연합에게 교회연합을 제안했고, 그해 겨울 열 명의 회중교회 목회자들이 토론토의 장로교 노회에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장로교 총회는 총회장 Caven 박사와 D. J. Macdonell 목사의 제안으로 “교회연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되, 다른 교회들이 임명하는 그 어떤 유사한 위원회나 기구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들을 가진 이 위원회가 다른 교회들과의 협의에 항상 열려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해에 감리교 총회는 교회연합의 틀로써 연맹Federation을 제안

했습니다. 장로교 총회는 임명된 교회연합위원회 Union Committee가 감리교에서 제안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직무들” dependent charges에 대해 협력하는 연맹의 틀을 더욱 명료하게 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맹제가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1890년 후반동안 부분적으로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경험으로 연합에 대한 열망은 더해졌습니다.

1902년 감리교 총회의 움직임에서 1894년의 연맹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던 이후 연합에 대한 관심이 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광범위한 협상들이 실패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감리교 총회는 장로교, 회중교회 그리고 감리교를 연합하자는 동의안을 가결하고, 다른 교단과의 협의를 위한 유력한 위원회를 선임했습니다. 1903년 장로교 총회는 이 선언을 받아들이고, 다른 두 교단의 대표기구들과 협의할 위원회를 선임하여 위임했습니다. 1904년 4월 21일, 각 교단으로부터 위임된 세 위원회가 토론토 웨슬리빌딩에서 Robt. H. Warden 박사의 인도로 모임을 했습니다. 이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회들은 각 교단에 보고하기를, 모두가 “유기적인 연합organic union이 바람직하고 또한 실행 가능하다는 의견에 한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듬해 장로교 총회는 총회장 Caven 박사를 의장으로 하는 더 크고 대표적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편, Caven 박사가 1904년 12월 1일 세상을 떠나고, Warden 박사가 그를 이어 연합을 위한 공동위원회 Joint Committee 첫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삼 일간의 진지한 협의회가 1904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토론토 Knox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동시에 연합에 대한 열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더 나은 진척을 위해서 교리 Doctrine, 치리 Polity, 목회사역

Ministry, 행정Administration, 교회법Law에 대한 5개의 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이듬해에 이들 각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잠정적인 교리의 기초원리도 교리 소위원회 보고서에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두 개의 문서를 기초해서 작성되었는데, 하나는 1902년 미국 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총회가 출판한 “개혁신앙의 개요”the Brief Statement of the Reformed Faith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위원회 몬트리올 지부에서 영국 장로교the English Presbyterian의 “신앙규약”Articles of Faith에 기초해서 작성한 교리 요약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교리의 기초원리는, 이후에 개정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소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밖의 소위원회들의 과정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1908년까지 지속해서 매년 12월에 모임을 했습니다. 장로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실행위원회는 1906년 캐나다 영국 성公会the Church of England in Canada와 침례교the Baptist Church 관련 당국에 교회연합을 위한 논의에 대표단을 파송하여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교단은 각기 완전히 다른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교회연합을 위한 직책/위원의 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연합될 교회 안에서 장로교회들은 감리교Methodist Conference 또는 회중교회Congregational Union와 함께 신앙의 규율 및 질서와 관련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갖게 됨과 동시에, “당연히 캐나다 장로교회와 본질적인 친교와 교제를 하게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1916년 총회가 결의한 연합에 대한 서약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연합을 향한 이런 분명한 선언은 투표 결과 찬성 414표 대 반대 10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1918년 감리교 총회는 교회연합 위원회(the Committee on Church Union)가 1914년 12월에 결의한 내용, 특별히 “연합교회”라는 명칭과 연합교회를 운영하는 총회와 노회 등 구조와 제도적인 장치에 관련된 제안을 받아들이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협의 중인 다른 교회들의 결정들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논의가 오랫동안 지체됨으로 상황이 어렵게 된 가운데, 우리 감리교 총회는 인내심으로 갖고, 각 지역의 절박한 상황을 협력하여 지혜롭고 은혜롭게 대처하며, 또한 선한 뜻으로 조직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감리교와 장로교 각 지역교회에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열정으로 나아가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연합을 완성하려는 감리교회의 진심 어린 의지는 교회연합위원회(the Church Union Committee)를 다시 선임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921년 10월 감리교 총회 특별위원회는 교회연합 공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Church Union)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협력의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공동위원회를 선임해서 캐나다 연합교회로의 법적인 합병에 대한 결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 더욱 분명해 질 것이고, 공동의 계획을 추진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23년에 공동위원회는 문서 및 자료국(Bureau of Literature and Information)을 설립하고, Kingston Chalmers 교회의 R. J. Wilson 박사

를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는 연합에 합류하지 않는 교회들은 그대로 각자의 소유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연합교회의 공동 재산을 공유할 수도 있는 안을 작성했습니다. 1923년 장로교 총회에서 새로운 연맹/연방제 Federation 방안이 제출되어 충분히 논의되었으나, 투표에서 444 대 92로 부결되었는데, 이것은 총회원들이 연맹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연합 Union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주에서는 1924년 12월에 캐나다 연합교회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퀘벡 Quebec에서는 올해까지도 1925년 이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의회 the House of Common는 최종 결의 없이 정회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Ontario에서는 법안에 대한 주요 원칙이 1925년 4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재산에 대한 문구는 앞으로 생겨날 반-연합교회 Anti-Union Church를 염두에 두어 개정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에 대한 법령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ct의 목적은 통합되는 교회들의 재산관리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법정 다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1925년 6월 10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세 교회가 캐나다 연합교회로 통합되고, 연합교회가 교회의 재산을 보유하는 법인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산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Commission를 두지만, 연합에 반대한 측에서 3명, 연합교회에서 3명, 그리고 앞에 나온 6명이 임명하는 다른 3명만 약 임명동의에 실패하면 대법원장이 임명,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1921년에 연합주의자들이 반 연합주의자들에게 제안했다가 거부된 조항으로, 교회연합을 놓고 투표하기 원하는 교회들은 연합이 발효되기 전 6개월 이내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마니토바 Manitoba와 뉴

브룬즈윅 New Brunswick 주의 법령은 연합이 발효되고 이에 참여할지를 두고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투표로 볼 때, 장로교의 4분의 1 정도가 연합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교회들 가운데 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들의 수는 비교적 매우 적습니다. 이제 사실상 캐나다의 모든 지역과 공동체에 연합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전 국민의 영적인 삶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크게 보서는 그동안 개신교 Protestantism에게 씌워졌던 분파주의 sectarian의 오명을 벗어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1925년 6월 10일 토론토에서 열리게 될 연합의 완성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908년 12월 11일 회의를 마치면서 공동위원회 the Joint Committee가 밝힌 결의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여기에 인용하고자 합니다. 공동위원회는 논의에 참여한 교회들이 “형제애적 정신으로 연합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깨달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 밖의 다른 기독교 공동체들을 공동위원회 회의에 초대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협의를 확대하는 것이 아직은 어렵지만, 논의에 참여한 교회들은 앞으로는 좀 더 광범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일꾼들에게 나타나시고, 당신의 영광이 모든 자녀에게 임하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당신께서 이루소서. 진실로, 우리가 하는 일을 당신께서 이루소서!’

여러분의 위원회는 연합정신이 연합의 역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캐나다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지 모릅니다. 이제 연합을 이루는 각 교회가 바로 연합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완성된 연

합은 앞으로 캐나다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걸쳐 이루어질 더 넓은 복음적 교회(Evangelical Churches)들의 연합을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해설

“역사적 선언서”는 연합교회의 설립을 기리는 문서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의지와 보조를 맞춤으로써 모든 인류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진술합니다. 많은 개신교인과 교회들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연합교회의 출범에 대해 전 세계 개신교회들로부터 축하인사가 쏟아졌고, 이것을 개신교 에큐메니칼 운동에서의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장로교의 입장에서는 연합교회의 설립이 고통스러운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선언서”에도 이러한 부분이 다뤄졌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법령”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ct의 목적에 관한 62쪽의 진술은 연합교회와 연합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장로교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산에 관한 논쟁 즉, 연합교회에 앞서 장로교회에 속한 재산에 관한 논쟁들을 언급하고 있고, 장로교인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캐나다 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Canada라는 이름의 사용을 연합교회가 막고자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75년에 연합교회와 장로교회는 서로 화해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연합교회 설립에 이바지했던 네 번째 교회로 지역연합교회(the General Council of Local Union Churches)가 있습니다. 주로 캐나다 서부

지역에 있던 교회들로 구성된 이 교회들은 1908년에 연합의 원리Basis of Union를 헌장charter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사적 선언서 61쪽에서 지나가면서 잠시 언급되었지만, 이 교회들은 하나의 교단으로써 연합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도 연합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밖에 연합을 가능하게 했던 아홉 가지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가주의nationalism, 경제계 안에서 있었던 전국적인 합병, 그리고 교회의 연합이 좀 더 효과적인 교회운동을 가져오고, 교회가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할 신념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역사선언서가 언급했듯이, 장로교회들과 감리교회들이 각각 한 교단으로 뭉쳤던 성공적인 사례들도 교단을 넘어서도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한 예수님의 기도도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또 이러한 연합이 캐나다 국민의 도덕의식을 형성하는 국가교회a national church로 나아가는 중대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비전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프랑스어권 캐나다인들은 소수만이 이러한 교회의 설립에 찬성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캐나다의 국가교회가 되려는 비전은 원주민들First Nations peoples과 영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이민자들non-British immigrants까지도 영국의 문화와 관습British ethos으로 동화시키는 것assimilating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건설에 관련된 정책들nation-building agenda에 기독교 신앙을 주입하고, 많은 원주민과 프랑스어권 사람들, 그리고 이민자들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연합교회의 이런 비전이 어떻게 제국주의적인 국가정책에 이바지하는지를 충분히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연합교회의 설립과 이후 수십 년간, 연합교회는 아프리카, 인도,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등에서 선교사들의 의료 및 전도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국외선교활동에서도 식민주의적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국가교회national church가 되려는 비전과 국외 선교활동에도 진심에서 우리나라오는 복음적 열정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연합교회가 지원하는 국내외 국외 선교사들의 수는 설립 당시부터 첫 십 년 동안의 선교사들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선교의 목표 또한 크게 변했습니다. 영국 출신이 아닌 사람들people of non-British origin을 동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연합교회는 문화상호적intercultural인 교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은 연합교회 설립 당시 선교사들의 활동과 그들을 지원했던 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소명은 그대로 똑같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교회가 이해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똑같이 동등하다는 중요한 인식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Rev. Samuel Dwight Chown의 연설에서 발췌⁶⁾

절차에 따라 총회장 선출 순서가 되었을 때, Rev. S. D. Chown 목사는 투표 전에 발언을 요청하고 아래의 내용을 낭독하였습니다:

“저는 저를 첫 번째 총회장으로 선출하려는 이 투표에 반대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저의 이 말이 많은 분들을 실망시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회를 다루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단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양심적으로 아직 정년퇴직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구실도 없습니다. 아직 노쇠하지도 않고, 건강상태도 양호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총회가 저에게 맡겨주는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많은 동료가 감사하게도 제가 연합교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감리교가 보여줬던 연합에 대한 확고한 지지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자주 말해왔고, 또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행복한 시간에 대한 가장 큰 공로는 우리의 탁월한 선구자 존 웨슬리 John Wesley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이 사람들을 감화시킵니다. 그의 가르침은 감리교 초기의 중심활동에서도 어디서든 가능하다면 연합을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지금 이 순간 빛나는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누구로부터의 암시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냉정하고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감리교에서 매우 중요한 책임들을 지어왔고, 햇수로는 13년이 됩니다. 저는 지난 23년 동안 이루려고

노력해왔던 이 위대한 연합교회가 저의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밖에 다른 이유 때문에, 저는 장로교에서 캐나다 연합교회의 총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가진 시간과 능력으로 이 위대한 교회를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함께 애써왔고 또 앞으로 새롭게 맺어나갈 따뜻하고 소중한 우정과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이 발언을 마치기 전에, 그동안 저에게 보여줬던 감리교인들의 인내와 친절,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리교는 저에게 최고의 명예를 안겨주었습니다. 혹 지난 일을 되새기는 것이 큰 결례가 아니라면, 십오 년 전 제가 처음 감리교 총회장으로 선출될 때 총 투표의 76%를 얻었습니다. 사 년 뒤에는 99.66%의 찬성, 그리고 팔 년 뒤에는 100%의 찬성을 얻은 저로서 지금도 이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캐나다 연합교회의 역사적인 첫 총회에서 제가 내놓는 첫 번째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받아주시기를 부탁하며, 저는 George Campbell Pidgeon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의 동의안은 W. G. Wallace 목사에 의해 재청 되었고, 총회는 기립표결로 가결했습니다. 투표를 시행하고, 의장은 George Campbell Pidgeon 목사가 캐나다 연합교회 초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Pidgeon박사는 연단에 올라 의장과 전 총회원들의 열광적이고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았습니다. 총회장이 된 Pidgeon 목사는 캐나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진 결정을 보여준 Chown 박사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락연설로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감사하면서 연합교회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해설

1925년 회의록에 기록된 Chown목사의 연설에서 그는 다른 누구의 조언도 없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연합교회 초대 총회장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George Pidgeon 목사에게 양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총회장이 될 기회를 포기할 때에, 그의 나이를 떠올렸던 때문에 더 이상은 앞으로 총회장이 될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과 함께, 그가 "평소 야망을 품은"⁷⁾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총회장 후보직을 포기했던 그의 행동은 더욱더 놀랄 만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구성원들은 연합을 이루도록, 그리고 새로운 교단의 정체성을 세우려면 자신들이 그때까지 지녔던 교단의 정체성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Chown목사의 스스로 포기하는 self-renunciation 감동적인 행동은 바로 이 모든 연합과정을 최고 절정에 달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결단은 연합교회 출범이 가능하게 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Chown목사는 자신이 힘과 지위를 얻을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일에

새로 시작하는 이 교회에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문화상호적인intercultural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오늘 연합교회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겸손함과 기꺼이 개인의 힘과 특권을 내어주는 자기희생의 모습은, 과거의 유산으로서 연합교회가 문화상호적인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3장 · 믿음의 노래 A Song of Faith

소개

믿음의 노래 A Song of Faith 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가장 최근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1988년 제32회 총회가 신학과 신앙 위원회 the Committee of Theology and Faith로 하여금 현대적인 신앙고백서를 개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000년 제37회 총회는 이 위원회에 시대와 상황에 맞는 신앙고백서⁸⁾를 만들도록 위임했습니다. 긴 협의 과정 후, 위원회는 믿음의 노래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 제39회 총회에서 신앙고백서로 채택되었습니다. 2012년 제41회 총회는 이 믿음의 노래를 1968년에 나온 우리의 신조 A New Creed와 1940년 신앙선언 A Statement of Faith과 더불어서, 연합의 원리 the Basis of Union의 20개 교리조항에 부속하는 규범으로 정했습니다.

믿음의 노래: 캐나다 연합교회 신앙고백선언 전문⁹⁾

서문 Preamble

이 신앙고백은 캐나다 연합교회가 21세기 초의 역사, 정치, 사회 그리고 신학적 상황에서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생히

묘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진술은 지속적인 성찰과 함께 교회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살도록 하는 초대장입니다.

교회의 신앙은 영원한 진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각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새롭게 채택되어야 하며, “그들 시대의 생각과 말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강조점을 가지고” 진술되어야 합니다. 1940년 신앙고백

연합교회가 공동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연합의 원리 1925년, 신앙고백 1940년, 그리고 우리의 신조 1968년을 통해 연합교회는 그 시대에 알맞은 언어로 신앙을 진술해왔습니다. “믿음의 노래”는 앞에서 언급된 전통에 기초해서, 제37회 총회 2000년가 특별히 교회의 본질교회론과 목회, 성례전에 관한 논의를 다루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신앙고백”을 작성하도록 한 요청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이 신앙진술은 연합교회의 정신을 반영하면서 현재의 사회, 정치, 역사적 상황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에 대해 응답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의 위치, 우리가 처한 문화적/지적인 환경, “진리”의 의미, 시장경제가 우리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안보” security의 의미에 대해 증가하는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적 요소들은 이 문서의 부록에서 더 깊이 다뤄집니다.

이 신앙진술은 모든 시대를 포괄하는 진술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진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한, 우리는 확신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광대하시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분이기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부분적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

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여기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뜻을
담았습니다.

믿음의 노래 A Song of Faith

하나님은 거룩한 신비이십니다.
인간의 전적인 지식 너머에 계신 분,
정확히 묘사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영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기에
그 우주와 함께 존재하고 관계를 맺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돌보시기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소외된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에
만물을 그 근본과 어우러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하여,
우리는 찬송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와 함께,
우리는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한
창조자, 구원자, 후원자
하나님, 그리스도, 영
어머니, 친구, 위로자
생명의 근원, 살아계신 말씀, 사랑의 띠,
이렇게 많은 다른 이름으로 신실하게 부를 수 있는 분,
우리가 진심으로 가슴깊이 의지하는 오직 한 분,
우주의 중심에서 온전히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시고 거룩한 신비이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주 구석구석을 두루 다니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세상을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으로 창조하셨는지요?
다양하고 서로 의존하는 생물들,
성장과 진화의 복잡한 형태들,
초미립자들과 우주 소용돌이들 안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각각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안에 계시고 창조 너머에도 계십니다.
생물과 무생물 모든 창조물은 서로 연결됩니다.
모든 창조물은 선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 서로서로 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 인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십니다.
생명의 그물망 속 한 가닥 실과 같은 우리 인생이
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자라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가족이자 형제·자매입니다.
우리가 지닌 죽어야 할 운명과 유한성이 저주가 아니라,
삶과 선택을 중요하게 만드는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분 안에서 삶이 이뤄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기심, 비겁함, 또는 무관심의 죄악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
헛된 욕망, 잘못된 선택으로 서로에게 해를 주고받습니다.
상한 인생, 깨진 공동체는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쌓여서 습관이 되고 조직적인 형태의 불의와 폭력 그리고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팽배는

인간관계의 결속을 약화시킵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무시한

부와 권력의 집중;

종교적이고 민족적 편견이 갖는 독소;

인간의 몸과 열정이라는 축복을

성적 착취로 전락시키는 일;

검증되지 않은 발전과 끝없는 개발에 대한 망상은

우리의 고향, 지구를 위협합니다;

지배 세력과 지배 체제와 함께

많은 사람을 무감각한 공범자로 끌어들이는 숨겨진 절망과

자포자기에 대해 우리는 애통과 참회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악은 하나님의 사랑을

손상하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실패를 고백하도록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시키시되,

세상과 우리 자신들과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되,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에서 해방되도록 기도하고,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합니다.

충만한 삶이란
예기치 않은 영적 깨달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들,
굽고, 참되고, 선한 것을 아는 것,
파종과 추수,
우정과 가족, 지성과 성sexuality의 축복들,
사람들이 정의를 이루며 화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공동체들과 함께,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만물 위를 바람처럼 다니시며,
모든 기운과 물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시며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분,

세상에서 일하시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분을 찬미하라고 도전을 주십니다.

익숙한 방식뿐만 아니라,

생소한 방식으로도 찬미하라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찬미합니다.

가슴 깊이 간절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근심과 고백을 감싸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감사와 경외를 드림으로,

마음 문 활짝 열어,

세미한 목소리로 위로하시는,

회오리처럼 다가오시는 그분께 예배합니다.

말씀과 음악과 예술과 성례전으로,

공동체에서나 홀로 있을 때에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관계와 세상에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합니다.

성서는 순례의 노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인도와 영감을 주시는,

인간의 경험과 다른 시대의 문화적 전제를 담은,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씩씩해야 하는 거룩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고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계시의 능력을 성서에 붙여넣으시고,
공동체의 삶 가운데
유일한 규범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는 성서를 오용하거나
편협한 해석을 하고
억압하거나 배척하거나 증오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입니다.

성서 전체가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성서 안의 다양성이 그 깊이를 증언합니다:
구약, 신약, 네 개의 복음서,
서로 어긋나 보이는 대조적인 관점들,
이 모두가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온전한 사랑, 거룩한 신비이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로 알려진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 오신 거룩하신 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유대인으로,
가난한 여인에게서,
사회적 격동기에,
정치적 억압 속에서 태어나신 분을 찬미합니다.
그분은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아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분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배가 아닌
평화와 정의와 화해의 나라.
그분은 병든 이를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온갖 악한 힘에 사로잡힌 이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인종과 계급, 문화와 성별의 장벽을 넘으셨습니다.
그분은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친구 사랑, 원수 사랑-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분의 증거가 위협적이었기에,
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침묵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버림받고 배신당했으며,

국가에 의해 고문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로 부활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 가르침, 헌신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죄, 슬픔 그리고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가 되신 그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분,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체화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교회를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깨지고 상했지만, 희망에 찬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분이 사랑하셨던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가르치셨던 것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라고
이 시대와 오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신실한 삶의 경험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그들의 유산이 토대가 되어 우리의 삶이 세워집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여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경험을 통해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학수고대하며 그 세상을 앞당깁니다.

그러나 교회가 늘 이 비전을 실천하며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전통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신앙을 살도록 도우시고,
자격이 아닌 은혜로 살라고 도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이뤄지는 것을 찬미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위로받고,
모든 이의 선함을 위해 은사를 나누며,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세력들에 저항하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폭력에 맞서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공동체원들이 바르게 세워주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붙들려 기운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창조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찬미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선교사역을
요청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는 특정한 목회 지도자로 일을 시키시고,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를 부르시고;
어떤 이는 복음 증거자로;
어떤 이는 예배 준비자로;
어떤 이는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며 방황하는 이들의 인도자로;
어떤 이는 억눌린 자들과 함께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교회의 사역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목회와 제자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세상과 자연과 우리 각자 모두가
떨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창조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세상에 거룩하신 주님의 현존을 나타내고자,
교회는 하나님 은혜의 가시적인 징표를 받고, 성화하고,
함께 나눕니다.

개혁교회와 감리교 전통을 가진 교회들과 더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로써 두 가지의 성례전을 기념합니다:
세례와 성만찬.

이 성스러운 예식에서 일상의 물과 빵과 포도주는
그들의 평범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가리키며,
삶의 한가운데 깃들어 있는 신성하신 주님을 향해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판단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앞서
우리는 이 세상의 상처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판단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앞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물세례는
시대를 초월하여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의식입니다.

물을 통해 이루어진 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
믿음으로 거듭남을 징표로 보여줍니다.

세례는 양육하고 격려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그 은총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응답을 나타냅니다.

만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식탁으로 초대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님이자 친구로 함께 모입니다.

거룩한 성만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성만찬은
장벽이 무너지고 만물이 치유되는 빛나는 약속입니다.
포도주를 따르고 떡을 떼는 성만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치르신 값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 값은 그가 행하시고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값은 이 세상의 허물로 인함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치르신 희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믿음과 소망으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넘어선 또 다른 삶과
상상을 초월하는 기쁜 미래를:
새 하늘과 새 땅,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가 올 것을 간절히 바라며,
지금 여기서 온 영원한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창조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과

전체를 이루고 결합하고 통합되기까지
멈추질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유한한 삶은 모든 것을 품으시는 창조주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의 삶을 품어 안고,
희망을 실현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가까이하기를 원하며,
경외와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시고 거룩한 신비이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아멘.

부록 A

신앙고백선언의 목적과 지위에 대해서

의도된 청중

“이 신앙고백선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안다면 이 문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게 대답하자면, 이 신앙고백선언은 캐나다 연합교회를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연합교회의 교인들과 교회, 노회와 연회 등 구성원들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토론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물론 연합교회 밖의 개인과 단체들이 관심을 두고 읽는 것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 선언서는 한가지 이상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큐메니칼 선교협력 파트너들은 이 선언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계시의 근원으로서의 성서,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확증과 같은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선언서에서 기독교 전통의 어떤 점들을 해석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그들과는 다른 부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서가 에큐메니칼 선교협력자들을 지속적인 대화로 초대하고 있음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비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이 선언서에서 대화하

고 협력할 수 있는 개방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선언은 성경계서는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 가운데 활동하신다는 점,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신 분을 알아보고 찬미하되 모든 표현과 방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낯선 것 모두를 통해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별히 어떠한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은, 이 신앙고백선언을 통해서 기독교 전통의 핵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캐나다 연합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서에 사용된 개념이나 용어들이 종교적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새신자들을 위한 신앙 입문서로 계획되었다라면 아마 매우 다르게 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독자들도 교회가 기초한 주요한 가치와 주장에 대한 적절한 개요 정도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와 지구적 상황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이 선언문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연대하려는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은 인간의 다양성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반면에 위협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력을 죄악으로 봅니다. 이 문서가 정책선언문이 아닌 신앙고백이기는 하지만, 고백을 넘어서서 편협한 종교와 민족주의,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부의 집중현상, 제국적 지배체제에 편승하는 삶, 그리고 지구를 해치는 개발과 환경문제 등 긴급한 문제들도 진지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합교회 교인이든 아니든 연합교회나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들, 또는 역사적으로 자행된 불의한 일들에 참여했던 교회의 역할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면, 이 선언문에서 교회가 종종

신앙의 비전을 실천하는 데 실패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이들과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사람에 따라 이 신앙고백선언도 다양한 의미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이 문서는 교회 공동체 자신을 위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의도하는 것은, 교회가 믿는 바를 자기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표현하고, 교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신앙의 어떤 기준을 규정한다기보다는 서술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연합교회의 활동과 담론, 기독교 전통과의 관계, 그리고 연합교회 자체의 역사 등을 토대로 교회가 이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조리 있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한 교단 전체의 신앙 표현이 교단에 속한 각 개개인의 특정한 신앙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교회는 신앙과 영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신앙선언을 어떤 식으로든 캐나다 연합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보서는 안 됩니다. 연합교회 내에는 넓은 신학적 스펙트럼과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이 신앙선언은 연합교회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관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비유해서 말하자면 “텐트”tent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텐트”가 매우 팽팽하게 당겨지기도 하는데, 연합교회의 정체성을 다루는 부록 D에서 이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언급할 것입니다. 연합교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이 있는 이 텐트에

서 자신의 위치는 어디쯤인지를 발견하도록, 그리고 같은 텐트에 머물고 있으면서 자신과는 다른 신앙의 표현과 강조점을 가진 동료의 신앙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도록 자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신앙선언이 연합교회 구성원들 상호 간의 더 큰 이해를 돕게 된다면 무언가 매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이 신앙선언이 세상에서 교회의 사역, 예를 들어 다양한 지역교회와 사회선교 활동, 정치참여, 국외 선교 동역 등에 대한 신학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룹 성경공부나 세례/견신례를 위한 신앙교육 등에서도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고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조A New Creed처럼 예배의식에 사용되도록 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선언의 일부는 예배 중에도 사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서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초안을 작성했던 위원회가 생각한 의도에 치우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각 교회의 다양한 삶과 사역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위

교회의 문서로써 이 신앙고백선언이 갖는 위치는 공식적으로는 총회가 규정하되, 실제로는 이것을 사용하는 교회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사용하는 교회에 달렸지만, 여기서는 이 선언이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부연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 신앙선언은 대부분 지역교회에서 사랑받으며 사용되고 있는 우리의 신조A New Creed를 어떤 식으로든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1968년에 채택된 우리의 신조는 일차적으로 예배의식에서 사용되는 간결하면서도 다양한 뜻을 함축하는 교리적 진술입니다. 연합교회 교인들은 이 신조를 매우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기에 실린 신앙선언은 우리의 신조보다 훨씬 길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또한, 이 신앙선언은 1925년 연합의 원리Basis of Union에 있는 20개의 신앙조항the Twenty Articles of Faith을 대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20개의 신앙조항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연합교회의 창립 교단 간에 이루어진 신학적인 합의를 담은 이 조항들은 감리교, 장로교, 회중교회, 그리고 지역연합교회 등 다양한 교단들을 하나로 연합된 교회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 신앙선언은 1940년의 신앙선언A Statement of Faith을 대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선언들은 - 20개 신앙조항1925년, 신앙선언1940년, 우리의 신조1968년 그리고 여기의 믿음의 노래2006년 - 교회의 삶 속에서 그들 고유의 특성과 용도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선언은 그 시대와 상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선언이 위에서 언급한 그 밖의 선언들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신앙선언이 함께 나란히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할지는 이것을 사용하는 교회들에 달렸습니다.

부록 B

신앙선언의 언어와 형식에 관해서

거룩하신 분^{the Holy}에 대한 호칭

이 신앙고백선언은 포괄적인 언어^{inclusive language}를 사용하는 연합교회의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수성이나 “정치적으로 옳은 언어를 쓰는 문제”^{political correctness}가 아니라 정확성의 문제입니다. 남성 명사인 “man”이라는 단어가 더는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지 않을뿐더러, “그”^{he}라는 대명사가 남성과 여성 모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배타적으로 남성을 지칭하는 언어와 은유만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성별구분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킵니다.

이 신앙선언은 삼위일체의 전통적인 이미지성부, 성자, 성령을 존중하고 사용하면서, 또한 그 밖의 다양한 이미지들, 예를 들어 어머니, 친구, 위로자 또는 생명의 근원, 살아계신 말씀, 사랑의 띠 등을 사용합니다. 단어^{words}의 선택이 거룩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수단이 되기에, 이 선언문은 우리가 마음깊이 신뢰하는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미지와 은유들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선언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우선해서 사용하는 것은 거룩한 신비^{Holy Mystery}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호칭하는 모든 표현은 인간의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실

재를 묘사하려는 시도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의식적인 훈련을 요하거나 또는 표현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진 이미지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노래한다

전체적인 틀과 언어에서 이 선언은 시(poetry)와 같은 모습과 느낌을 듣게 합니다. 하지만, 시의 예술적인 맛을 추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의도는 아닙니다. 결국, William Blake, Christina Rossetti, Leonard Cohen, Jalal ad-Din Rumi 등의 훌륭한 시인과 작가들에 버금가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신앙선언의 초안자들은 의도적으로 어느 하나로 뜻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글의 형태와 어조를 선택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존재하는 다양성,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한정되어 길들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응답으로써 이 신앙선언문이 대화의 끝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서정시의 요소를 살림으로 이 신앙선언을 한 편의 사랑의 노래로, 연합교회가 가슴 깊이 간직하는 가치와 사상, 진리를 노래로 표현하는 어조로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자신의 또 다른 선율과 가사와 화음을 더해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시적인 구성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신앙선언의 틀과 언어가 읽기 어렵게 느껴지고, 좀 더 단순하고 직설적이고 명백하게 교리를 진술했으면 하고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안자들이 이러한 시적인 형태와 언어를 선택한 것은, 다양한 관점들을 조화롭게 반영하려는 방법으로, 그리고 왜곡됨이 없이 단순하고 직설적인 말로 진리들을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어

이 신앙선언 곳곳에서 기독교 전통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낱은 문구들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기독교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연합교회 내의 신학적인 다양성으로, 어떤 그룹은 특정한 용어나 문구를 연합교회가 함께 나아갈 일반적인 기준으로 여기지만, 다른 그룹은 똑같은 용어나 문구를 좌파의 “붉은 깃발” red flag 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선언서 초안자들은 연합교회 모든 교우가 자신의 신학과 믿음의 성향에 상관없이, 상투적인 어법을 넘어서 지금의 연합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양태들의 기초가 되는, 모두가 공유하는 의미들을 보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신학용어와 개념들, 예를 들어 “죄”, “회개”, “증언”, 그리고 “은총” 등은 우리 시대와 상황에서 독특한 또는 도전적인 진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

때로 이 선언문은 같은 신학용어라도 우리 사회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해석과 함께 연합교회가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해석을 번갈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 속에서, 선언의 초안자들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되 많은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신학적 소양을 높이고 성찰과 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희망 사이에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습니다.

부록 C

신앙선언의 상황에 대해서

신학과 신앙 위원회(the Theology and Faith Committee)는 총회로부터 “시대와 상황에 맞는”, 즉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 우리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하고 현 상황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신앙선언을 초안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연합교회가 처한 사회, 정치,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선언의 초안자들에게 중대하게 다가오는 몇 가지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신앙선언의 내용과 형태 모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계에 목말라하는 사람들(The Hunger for Relationship)

한 때 캐나다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던 전통적인 연결고리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기독교 교단들이 교인 수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사람들의 정당(political party) 참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이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거리를 가로질러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기껏해야 “가상의” virtual 공동체를 제공할 뿐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관계가 편리와 실용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관계에 목말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소외되고 단절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떤 이들은 소속감을

주는 어떤 곳이든지 - 그룹이나 폭력조직이든, 소수 종교집단이든, 또는 어떤 운동이 됐든 - 맹목적이고 비판 없이 추종하기도 합니다.

“관계”라는 주제가 믿음의 노래 신앙고백선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 바로 창조의 근원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선언은 예수님이 보여준 도전적인 사랑의 윤리를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동반관계”, “연대”, “공동체” 그리고 “올바른 관계”에 대한 요구 등을 사용합니다.

더는 권력의 중심이 아닌 교회 The De-Centred Church

캐나다와 많은 서구사회에서 교회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것으로 변했습니다. 더는 사회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제 중심이 아닌 변두리edge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예전처럼 정치와 문화적인 영향력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는 이제 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기독교가 특권을 누리던 시대를 동경하며 향수에 젖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가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진 지금, 역사에서 자행된 억압과 학대에 예를 들어 원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연합교회가 동참했었다는 점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는 중심이 아닌 주변부가 된 것이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지만, 소외당한 이들과 진실로 연대하며 권력의 중심이 아닌 약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학과 세계관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신앙선언은 교회가 “항상 그 비전을 실천하며 살지는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로/자격이 아닌 은혜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억눌린 이들과 함께 연대하며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세력에 저항”하는 일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언은 성령이 단지 기독교 공동체만이 아니라 “은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진리”에 관한 질문

이 신앙선언은 보편적인 경험과 포괄적 진리에 대한 근대적인 관념들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썼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공통분모”를 찾으려 애쓰고, “공동의 정체성”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언도 그렇게 확고한 입장을 제공하지도 않고, 그러한 선언을 채택한다고 해서 어떤 소속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에, “연합하는 진리”에 관한 질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신학적인 확신과 깊이 씨름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다종교 세계에서, 그리고 다양한 신학적 관점이 존재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절대적 진리를 배타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남을 해치는 것까지 허락해주는 것으로 여기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 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무관심하거나 자기만족에 그치곤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연합교회는 우리를 신앙공동체로 묶어주는 뚜렷한 의식을 계속 확인하는 한편, 점점 더 내적인 다양성을 받아들

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그 진리가 다른 이들의 진리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신앙선언이 신비로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인간의 모든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뿐만 아니라, 생소한 방식으로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도전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연합교회는 우리가 진심으로 신뢰하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부르는 다른 이름들이 있음을 존중합니다. 이것에 대해 부록 B에 ‘용어’에 대한 부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 체제

우리는 경제상업-상품-소비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팽배한 경제논리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의 관계와 가치, 정체성, 그리고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소비문화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지구 전체를 우리가 조작하고 지배하는 어떤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면서도 정작 실제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점점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세계 속에서,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과 가치, 목표들이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착취적인 경제와는 대조적으로, 신앙에 따른 예언자적 목소리는

가족 공동체household의 모델에 기초한 약속의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경제모델은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자신이 처한 자연 환경과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이, 함께 사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 좋은 안식처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이 신앙선언은 모두의 필요를 무시한 “부와 권력의 집중”과는 대조적으로, “은사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발전, 끝없는 개발에 대한 망상”에 반하여, 모든 생명체의 상호의존성을 이야기합니다. “제국적 지배세력 지배체제에 무감각한 공범이 되는 것”에 반해서, “올바른 관계”와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세력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테러의 시대The Climate of Terror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실질적인 또는 조장되고 있는 위협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안전 또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두려움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타인”other를 공격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위협을 멀리하려고 벽을 쌓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귀중한 자원을 군사력 증강에 쏟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힘있는 동맹세력을 찾아다닙니다. 반면, 예언자적인 신앙공동체와 개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대화와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위협과 두려움의 상황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곳,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자리로 변화시킵니다.

이 신앙선언은 “모든 이들이 한 가족”이라 인식하고,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폭력에 맞서며”, “창조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죽음과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폭력과 공포, 전쟁과 증오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가뜨리거나 이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고향, 지구

우리는 자연환경이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인류문명으로 자연의 균형이 파괴될 가능성을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신성한 지구”^{sacred earth}, “창조의 선함”^{good creation}과 같은 오래된 인류문화와 종교전통의 개념이 그동안 서구문화가 자연을 대해왔던 정복과 착취의 교리에 대한 도전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신앙선언은 창조세계가 그 모든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상호의존성과 함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림자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인간을 지구의 주인이나 소유주가 아니라 “생명의 그물 속 한 가닥 실”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이 신앙선언은 “창조의 회복”을 하나님의 계획이요 교회가 해야 할 일로 고백합니다.

부록 D

신앙선언에 반영된 연합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신앙선언의 많은 부분이 일인칭 복수로 기술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때로 “우리”는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넓은 기독교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나사렛 예수로 알려진 하나님을 만나고” 하지만, 대부분 이 선언에서 “우리”는 바로 캐나다 연합교회 The United Church of Canada를 말합니다.

또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연합교회와 같은 집단적 조직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교단 전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신앙선언과 개개인의 신앙양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 ‘믿음의 노래’와 같은 신앙고백선언이 연합교회 교인들에 의해 채택되려면 반드시 교회의 독특한 정신과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그러한 “정신”에 대한 이해도 개인적인 경험과 관계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교회인가?” 하는 한 개인의 생각은 아마 다른 사람의 생각과 크게 다를 수 있고, 이 때문에 교회가 집

단적으로 공유하는 진리를 하나의 진술로 표현하기란, 특히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는 연합교회에서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선언의 초안자들이 캐나다 연합교회와 교회의 살아있는 신앙을 정확히 반영하는 문서를 작성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어떤 전제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뚜렷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다른 것들은 선언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교회 구성원들과의 폭넓은 협의를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정의, 포괄성, 성서

캐나다 연합교회 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교회 회원들과 밖에서 연합교회를 지켜본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몇 가지 연합교회 공동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본 선언서 안에도 상당히 반영되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주요한 개신교 교단(Protestant Christian denomination)이기에, 이 선언에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하심을 고백하고, 신앙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중대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연합교회가 기독교 전통에 속해있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 교단들과 상당한 공통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연합교회를 독특하게 만드는 자기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이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연합교회의 “머리, 가슴, 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설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머리”는 연합교회의 성서해석에 대한 접근방법이고, “가슴”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성에 대한 애착이며, “배”는 사회정의

에 대한 열정입니다.

연합교회의 태동은 20세기 초 사회적 복음운동(the Social Gospel movement)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항상 캐나다 사회와 세계 속에서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교회로 인식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지배가 아닌 평화와 정의와 화해의 나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앙비전의 진술 안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 공동체와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위협하는 “조직적인 형태의 불의, 폭력, 증오”를 죄악으로 지적하며; 교회가 “억눌리는 이들의 편에 서서”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세력에 저항”하도록 요청하는 것에서도 반영됩니다. 뚜렷하게 규정된 정의를 위한 열정과 헌신으로 연합교회는 “선교”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하고, 자선과 개종 중심의 선교모델로부터 “파트너십과 연대에 기초한”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선교로 바꿨습니다.

연합교회는 자신을 “포용적인” inclusive 교회로서 인식하고, 성별과 인종, 성 정체성, 나이, 신체능력, 경제적 계층 등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이 같은 포괄성에 대한 욕구는 교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각기 다르게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연합교회의 자기 이미지(self-image)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신앙선언은 모두가 한가족이고 우리 안의 다양성을 축복으로 인정하는 것 안에서 그 가치를 지닙니다; 예수님을 “인종과 계급, 문화와 성별의 장벽을 넘으셨던 분”으로 기억하는 것에서, 그리고 성서를 “남을 억압하고 배척하고 증오하는 도구”로 해석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에서도 포용성을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됩니다. 이것은 또한 선언서 전반에 걸쳐서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록 B 용어에 대한 부분을 참고

연합교회는 성서를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황을 염두에 둔 해석을 합니다. 연합교회에서의 성서 연구와 해석은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 문서가 담은 가치와 기능, 본문에 나타난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들, 그리고 또한 성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은 소외된 목소리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신앙선언은 성서를 “인간의 경험과 다른 시대의 문화적인 전제를 담은” 증언이면서 또한 계시의 근원이요, “신실한 증언”, “순례의 여정을 위한 우리의 노래”로 인식합니다.

내적인 긴장Tensions

위와 같이 연합교회의 집단적 정체성으로 몇 가지 특징들을 언급할 수 있는 한편, 신앙선언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협의과정을 포함해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은, 살아 움직이는 어떤 그룹이나 기관이든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교회 내 미해결로 남아있는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와 성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들은 관점의 차이에서 오기도 합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긴장들은 때로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이지만, 때로는 분열을 일으키고 우려를 해오기도 합니다. 사려 깊은 독자들은 이 신앙선언에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아마도 해결할 수 없는 긴장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다양성과 일치 - 모두를 아우르는 연합교회의 포용성이 다른 한편

으로는 하나로 연합된 정체성 또는 동질감을 확립하는 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폭넓은 신학적 관점들과 다양한 예배방식들, 정치적 입장들, 문화적인 가치들, 사회적 관습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배경과 지역적 연계, 성 정체성 등을 교회가 수용하고 조화시키는 데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치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반대로 무언가 “공통되는 실마리”를 정하는 것 자체가 항상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분열을 조장하고, 경계를 쌓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게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배제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우리”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확립하려는 시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그리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연합교회의 꿈은 여전히 긴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신앙선언도 이러한 긴장을 후련하게 해결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진보와 전통 - 연합교회는 안과 밖의 많은 이들에게 “진보적인” 교단으로 여겨집니다. 문화와 소통하고, 상황에 적응하며, 많은 부분 현대(modernity)와 포스트모던(post-modernity) 사회의 지적인 결과물들을 수용합니다. 동시에 기독교 전통의 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 기독교의 정통한(orthodox) 가치로 여기는 것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의 첨단을 추구하는 이들이 교회를 반대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긴장이 생깁니다. 이 신앙선언은 이런 긴장을 받아들이면서 창조적이고 신실하게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지구적 관점과 유럽 중심의 세계관 - 연합교회는 점진적으로 변화

해가는 선교에 대한 이해와 포용성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까지 무시되어왔던 다양한 목소리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여성들, 빈곤에 처한 사람들, 소수민족들, 그리고 지구 공동체의 형제·자매들 특별히 이른바 “제3세계”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합교회 교인들의 다수가 여전히 유럽 태생의 백인, 중산층, 그리고 북미의 배경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연합교회가 지구적인 연대활동을 점점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교회의 가치와 관점들이 역사적으로 중산층 백인 중심의 유럽-캐나다 교회로서 처한 사회적 존재기반^{social location}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다양한 이들의 견해와 목소리들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들어야 할 더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제도적 권위 - 연합교회는 신앙과 영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선언의 존재 자체가 개개인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과 교단 (그리고 교단 전체의 신앙양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부록 A 신앙선언의 목적과 지위에 대한 부분을 참조).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편리와 효용성으로 좌우되는 소비사회에서, 교회와 같은 집합체의 “구성원” membership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권위로부터 제도적 교회가 그 구성원들을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은 이 신앙선언문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또 연합교회 전체가 관련된 일들에 대해 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책임감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인종차별과 문화제국주

의적 교육정책을 펼쳤던 원주민 기숙학교 운영에 교회가 동참했던 일이나 사회정의운동에 대한 연합교회의 적극적인 참여 등)

이러한 여러 긴장은 오히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직면한 긍정적인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노력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해설

대부분의 기독교 신조는 교리적 논쟁과 그 시대의 윤리적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글로 표현한 “신학적인 성명서” theological manifestos 10)입니다. 믿음의 노래 A Song of Faith도 이와 같습니다. 이 신앙선언은 환경위기와 인종편견, 경제적 불의,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복잡함과 불확실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또한 현재 연합교회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신앙을 진술하는데 있어서 연합교회 내의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을 인정하는 ‘양쪽 모두’ both/and의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에 대해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다른 교단들이 함께 사용하는 에큐메니칼적 신앙고백을 사용하지만, 바로 이어서 “어머니, 친구, 위로자”와 같은 포용적인 언어를 대안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깨지고 상했지만, 희망을 품은 믿음의 공동체”로 묘사하는 것은 오늘날 연합교회가 교인 수의 감소와 사회적 지위의 변화 그리고 원주민 기숙학교 정책의 유산과 씨름하면서 움츠러든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 선언에서 창조세

계를 묘사할 때에 자연과학이 제공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고백은 현대적인 성서해석에 근거합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믿음의 노래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모든 고백도 상대화시키는 것을 일정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교회가 종교다원론¹¹⁾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신앙공동체로서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고백과 함께 그 당시 사회 종교 정치적 갈등의 맥락 가운데서 그분을 역사적인 구체성을 가지고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노래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public ministry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사도신조the Apostles' Creed와 같은 신앙선언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유일한 이유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분의 증거가 위협적이었기에”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앞에서 나타난 역사적 구체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다양한 원인이 누적되고 상호작용하여 일어난 것으로,¹²⁾ 이에 대해 좀 더 충분히 언급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비판적 평가를 합니다. 한편, 성령the Holy Spirit-“영”으로 자주 언급되는 - 의 사역과 본질에 대해 대단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노래가 하나님을 뚜렷하게 삼위일체로 묘사하는 것에서, 그렇지 않은 우리의 신조A New Creed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둘러싼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획기적인 신앙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고백 되지 않는 곳에서도 활동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을 교회와 신자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일하십니다.

믿음의 노래의 어조는 감사와 겸손과 기쁨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운데 하나의 신앙공동체로서 행하는 이 신앙고백은 설립될 당시의 연합교회와 기독교가 가졌던 상기된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와 함께, 선언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은 만물이 온전해지고 연합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노래는 혁신적인 측면도 있고 현대적인 신앙선언이 되도록 노력한 면이 있지만, 또한 연합교회 전통의 많은 부분을 기본 토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고 부르신다.”라는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2세 여학생들을 위해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연합교회 교육프로그램인 탐험가(the Explorers) 행사의 표어로도 쓰입니다. 이 구절은 또 연합교회가 기독교인의 삶을 ‘행동하는 사랑’ love in action으로 강조한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노래는 오늘날 연합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표현한 훌륭하고 적절한 신앙선언으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조화롭게 담고 있습니다.

4장 · 문화간 목회: 변화 속에서 살아가기

소개

2006년 제39회 총회에서, 캐나다 연합교회는 문화상호적인 교회 intercultural church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기도하는 마음과 같은 통찰과 1996년 설립된 소수민족 목회 협의회Ethnic Ministry Council의 지난 10년을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연합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의 현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변화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 연합교회 전반에 걸친 힘의 불균형power dynamics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소수민족 공동체들을 돕거나 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다루는 것은 생색내기식의 선심을 쓰면서patronizing 도구화tokenizing하는 경향성을 들춰냄으로써, 소수민족 공동체를 분리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가 서로 동등한 가운데 상호작용하는 ‘문화간 목회’는 의도적으로 더 큰 노력을 통해서 문화와 언어적인 측면에서 약자로 볼 수 있는 공동체들을 들어 원주민, 프랑스어권, 청각장애, 그리고 인종적으로 구별된 교회 구성원 등이 겪는 불공평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결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문화간 목회가 단지 소수민족 그룹들에게만 중요하고, 다수의 영어권 그

룹들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총회에서 본 안건이 채택될 때, 문화상호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을 것” Not one thing will be left untouched in God’s transformative power”이라고 뚜렷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장에 수록된 문서는 선교와 목회 프로그램 상임위원회 Permanent Committee on Program for Mission and Ministry의 문화간 목회 연구 소위원회 Task Group on Intercultural Ministries가 2012년 3월에 있었던 총회 실행위원회 The Executive of General Council에 제41회 총회 현의안으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8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 6년 동안의 ‘문화간 목회’를 위한 노력과 활동의 경과를 보여주고, 문화상호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고 자세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위의 문서와 함께, 번역작업에 참여한 한 목회자의 문화간 목회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도 첨부되었습니다.

“문화간 목회: 변화 속에서 살아가기” 발췌¹³⁾

문화상호적인 교회는...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하는welcoming공동체로서:

- 열려 있고, 수용적이며, 기쁨이 넘치고, 활기를 북돋아준다.
-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를 새롭고 다양한 경험들로 인도하시

되,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되고, 힘이 들고, 불편한 일도 경험하도록 하신다고 믿는다.

- 예배와 공동체 삶 속에서 포괄적인 언어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교회의 정책문서와 공식 선언문에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다.
- 서로 의존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mutuality,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inclusion, 아무런 장벽 없이 철저하게 모두를 환영하는 것 radical welcoming을 교회의 선교와 목회의 원칙으로 노력한다.

관계적인relational 공동체로서:

- 공동체들 가운데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고, 신앙에 대한 문화적 표현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 다양한 문화적 관점들 사이의 관계와 한 문화의 내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안목으로 접근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 서로 간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상호 관계들을 인정하고, 모든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을 깨닫는다.
- 문화적으로 다채롭고 영어 외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한다.

적응력 있는adaptive 공동체로서:

- 실수를 받아들이고 과거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하

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불어 살아간다.

- 각자 자신도 약점이 있고 상처입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 지배적인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긍정한다.
- 우리의 마음과 사고방식, 교회의 구조와 정책에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가 요청될 때 계속해서 그것에 적응하도록 노력한다.

정의를 추구하는 justice-seeking 공동체로서:

- 확고한 자세와 진정성을 가지고 자원을 공유하고,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며, 구조적인 불의에 맞서는 한편, 교회 안팎에서 모든 이들이 동등한 입장으로 모든 일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 인종차별과 백인중심의 특권에 대해서 진지하고 숨김없이 다르다.
- 교회가 역사적으로 불의를 행하는데 동참했음을 인정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노력한다.
- 지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동체, 모두를 아우르는 공동체,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목적을 가진 intentional 공동체로서:

- 다양한 문화적 관점들로 교회가 풍부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진 공통점이 우리 안에 있는 차이점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배운다.

- 용기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 주도적으로 다양한 지도력을 양성하되,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했던 문화적 공동체에서 더욱 지도력을 개발한다.
- 꾸준히 자기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평생을 통해 배우며 성장하되, 문화상호적 활동에 대한 기도, 교육, 훈련, 협의, 관찰,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갖는다.

선교하는 missional 공동체로서:

- 문화상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성서적 신학적 바탕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실천한다.
-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고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모든 다양한 차이와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부록A

문화간 목회에 대한 경험과 성찰 - 한 목사의 단상

환영하는welcoming

영어권 목회를 시작하는 첫날의 감격을 나는 잊지 못한다. 내가 목회하고 교회가 있는 지역은 나와 같은 유색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그 교회 역사 속에서도 백인이 아닌 유색인 목사는 내가 최초이다. 그날 나는 교인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까닭에 말이 서툴지만, 말이 아닌 사랑으로 그리고 몸으로 목회하려고 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듯 고개를 깊숙하게 숙여서 인사를 했다. 나를 목사로 받아준 교회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이 인사로 대신하고 싶었던 것이다. 인사를 마치고 교회회원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환한 미소와 박수로 나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순간 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동시에 새로운 목회적 도전의 순간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성령께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물론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그렇기에 나뿐만 아니라 교회회원들 또한 인내와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목회를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그리고 교회는 이 환영의 순간을 통해서 간-문화 목회 속에 들어와 있음이 분명하다.

관계적인relational

우리 교회의 목회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장년으로 성장한 한국인 목사와 캐나다 백인 문화 속에서 성장한 회중 사이에서 문화가 서로 교류, 즉 문화 충돌과 이해 그리고 수용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사건이자 동시에 목회자와 회중 사이에서 설득과 공감을 통한 관계적 사건으로써 목회자와 회중의 문화적 충돌과 이해 그리고 수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나의 설교는 이미 나의 문화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통로이다.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심지어 나의 시선과 손짓마저 문화의 차이를 담고 있다. 예배 중 진지하면서도 한편으로 심각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한국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순간 충돌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하지만, 나름으로 준비한 유머에 회중이 큰소리로 박장대소할 때 공감을 넘어서 모두가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지속적인 충돌과 이해 그리고 수용 속에서 우리는 서로 변한다. 회중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는 그들을 변화시킨다. 문화적 충돌과 이해 그리고 수용이라는 관계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알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간다.

포함/포용의 문제The Problem of Inclusion

연합교회가 자신을 스스로 포용적인inclusive 교회라고 설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 연구 소위원회Task Group on Intercultural Ministries는 “포용”이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포함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다른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포함/포용”이란 말과 행동 자체에 힘의 불균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권을 가진 지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주인과 손님 관계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포함/포용”이 반드시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항상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선뜻 A라는 사람을 포함하되, 자신의 행동방식은 전혀 바꾸지 않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포함/포용이 꼭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진정으로 환대하는 공평한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수자 그룹이나 개인이 어떤 지배적인 문화 속에 초대받지만,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돕기 위한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은 채 초대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의 차이나 특권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포함/포용의 신학^a *theology of inclusion*을 발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캐나다의 상황에서 문화간 목회를 위한 신학^a *theology of intercultural ministries*에 초점을 두는 것이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록 B

“문화”와 “문화상호주의” 이해하기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는 보통 어떤 그룹 안에서 공유하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알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도 또한 아는 것을 문화라고 말합니다. 문화는 일련의 어떤 렌즈lenses와 같은 것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주변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해석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우리의 영역을 설정할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문화적 요소들”이 눈에 잘 띄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서 자신의 문화적 경계를 인식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또한 경험하는 것은, 문화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태도와 가치들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 그룹들을 포함합니다: 나이와 세대, 사회경제적 계층, 성 정체성, 성별, 신체적 능력, 인종, 민족, 국적, 신분, 지리적인 관계, 정치적 입장, 신앙 공동체, 언어, 농촌과 도시 등등.

문화는 독특한 음식이나 의복, 축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하나 이상의 문화 공동체에 속해있습니

다. 그리고 우리의 집단적인 문화는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 관계, 공동체, 정체성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 자체로 문화는 유동적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문화적인 공동체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단지 인종과 관련된 정체성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양한 문화적 영역과 공동체들 사이에서 변화와 과도기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문화적인 렌즈들 우리 자신의 렌즈와 다른 이들의 렌즈들에 대해서 더욱 알아 갈수록, 문화에서 벗어난 관점culture-free perspective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Michelle LeBaron & Venashri Pillay, “갈등, 문화, 그리고 변화의 이미지들 Conflict, Culture, and Images of Change”14-15쪽, in *갈등과 문화 Conflict Across Cultures*, Intercultural Press, Boston, 2006 내용을 참조로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상호주의Intercultural 이해하기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넓은 만큼, 문화상호주의에 대한 이해도 광범위합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문화와 문화 간에 공평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 mutually reciprocal relationships among and between cultures 로 설명된 의미가 이제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화상호적인intercultural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

다.

문화상호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함께 살아가라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의식적으로 꾸준히 자신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 연합교회는 온전히 충심을 다해 이러한 소명에 응답하는데 전념한다.

해설

“시작이 반이다”라는 한국속담이 있습니다. 연합교회는 7년 전, 문화상호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속담의 자혜가 말해주듯, 이 여정의 절반 이상을 왔기에 고무적이고 흥분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위의 문서도 문화상호적인 교회로 나아가는데 부딪치는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포용/포함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포용적”인 교회로 자신을 스스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연합교회로서는 포용/포함은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사실, 문제가 있다는 비평을 듣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연합교회가 힘의 불균형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면서, 문화 간의 만남과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관계의 복잡성을 인식하려면 이러한 비판도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문화상호적인 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차이와 다양성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앞 장에서 본 '믿음의 노래' A Song of Faith가 연합교회가 문화상호적인 교회로 나아가겠다고 결의한 2006년 총회에서 함께 채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노래'는 "문화상호적으로 신학하기" intercultural theologizing 14)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노래 초안을 만들고, 연구하고, 토론하던 그 자리에 함께했던 같은 성령께서 문화간 목회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화 속에서 살아가라는 소명, 문화간 목회에 대한 비전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힘의 남용을 꾸짖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과감하게 변화하고 새로워진 신실한 삶을 살도록 일깨우십니다. 이 신실한 삶은 단지 생존이나 상실과 씨름하는 목회가 아니라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목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론

이 소책자에 수록된 문서들은 캐나다 연합교회의 정신^{ethos}과 85년 여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는 안내서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많은 연합교회 교인들은 연합교회를 단순히 자신들이 속해있는 교회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연합교회는 사람들이 이루고자 희망했던 이상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전국적 차원에서 연합교회는 늘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에 열중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something}를 이루려고 늘 일해왔습니다. 1975년까지는 이루려는 그 “무언가”의 상당 부분이 바로 국가적인/대표적인 교회^{a national church}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회교회^{the Anglican}와의 연합 논의가 실패로 끝났을 때, 이러한 비전은 더는 오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의 마지막 문서는 상당히 다른 프로젝트, 즉 문화상호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합교회를 이끌었던 과거의 오래된 비전도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살아있습니다. 새로운 비전도 여전히 “캐나다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과 문화를 섬기는 연합교회”¹⁵⁾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바로 그”^{the} 캐나다 국가대표 교회가 되려 하거나 모든 캐나다인을 하나의 문화적 풍토로 묶으려 하기보다는, 이제 연합교회는 자신을 많은 기독교 교단들 가운데 하나로서 생각합

니다.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관계를 맺는 풍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6)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려면, “Chown 박사의 스스로 기권하는self-renunciation 훌륭한 행동”¹⁷⁾같은 것이 21세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권력과 특권의 위치에 있는 많은 영어권의 유럽계 백인 Anglo-white European 회원들 편에서 이 행동이 더욱 절실합니다. 문화 상호적인 교회가 되려면 정체성의 영역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체성의 영역” Identity space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가지는 가치, 전제, 존재방식, 그리고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있는지에 대한 기대 등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범위가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때,”¹⁸⁾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고 예배할 때, 이 정체성의 영역을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상당수의 교인으로 구성될 때 정체성의 영역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규정하고 운영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먹는 음식에서부터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상당수의 교인이, 공동체의 정체성 영역을 어느 정도 함께 나눌 때만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공존co-exist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갖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가치와 전제가 있을 테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구성원들은 서로 차이점들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도록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공동체는 스스로 각기 다른 문화와 존재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인 태도가 있어야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캐나다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함께할 공간을 만들려면, 연합교회 내 영어권의 유럽계 백인 회원들은 자신들의 문화 규범과 복음의 해석이 표준이라는 생각을 단념하고,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과 함께 살고 대화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화상호적인 교회가 되려면, 소수 공동체가 가진 문화적 관습과 복음의 이해에 대해서 자신을 개방하는 훈련이 기존의 연합교회 회원들에게 필요합니다. 문화적으로 다수majorities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유럽출신 백인들이 중요하게 배워야 할 점은, 자신들의 문화적 전제들이 규범이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특권을 포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배움의 일부입니다.

만일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러한 필요성이 생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이러한 노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문화상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정의를 추구하고 도덕적인 요구에 순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개인적인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원천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문화상호적인 교회에서 정체성의 영역identity space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대화와 토론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문화그룹의 관점들이, 마치 꽃가루가 서로 옮겨다니며 열매를 맺도록 하면 서로 더욱 풍성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들 사이의 수분작용cross-pollination을 통해서, 각자가 다른 이를 통해서 풍부해지고, 이런 상호작용이 없었다면 배우지 못했을 점을 깨달으면서 자신과 다른 이들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언어와 문화는 단순히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쓰고 난 후 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문화상호적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정체성 영역의 공유가 이러한 정체성들이 서로 대화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또 하나님은 무엇이 되라고 우리를 함께 부르셨는지 묻고 대화하는 것은 문화상호적인 교회에 본질적이고, 이를 통해서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합니다. 문화상호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함께 살며 예배함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세계관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복음과 다양한 그룹 사이의 만남은, 문화상호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지금 어디쯤 와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에게 복음은 자기를 포기하라는 요청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위와 힘에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을 요구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정체성의 영역을 공유하는데 있어서 좀 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심지어 자기주장self-assertion을 하라는 요청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려고 소수 공동체는 흔히 “뭉치는 것”cluster이 필요합니다. 문화상호적인 교회 안에서 지속가능하고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힘과 도움을 모두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뭉치는 현상은 주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관리하는 구조적인 면에서 일어나는데, 소수 공동체가 계획하고 그 외 구성원 다수가 인정하는 병렬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연합교회 내 원주민 연회the All Native Circle conference와 노회들, 그리고 Consistoire Laurentien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교회들의 모임이 이런 예입니다. 이번 소책자 발간을 위해 모였던 한국

인 목회자 그룹도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대화했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이런 소위 멍치기 모임과 나눔은 계속 권장되어야 합니다. 문화간 목회한다고 해서 억제하거나 그만두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민족-문화적으로 독특한 공동체(ethno-culturally specific communities)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그룹들 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들어가는 일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그룹의 필요와 욕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그룹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협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정체성의 협상(negotiation of identity)은 점점 “현실(reality)의 문제이지, 겉포장만 그럴듯한 새로움(cosmetic novelty)의 문제가 아닙니다.”¹⁹⁾

문화상호적인 교회에서 정체성의 영역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형태의 노력, 예를 들어 문서와 자료를 번역하거나, 표지판을 다른 언어로도 설치하는 등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책자는 주요 문서를 소개와 해설을 첨부해서 한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전체 연합교회가 문화상호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움직임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문화상호적인 교회의 역사, 정신, 그리고 신념에 대해 꼭 영어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모국어로 이런 내용을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자의 문서들은 세인트 앤드류스 신학대학원(St. Andrew's College)의 두 교수가 선택했고, 편집하고, 해설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공동작업에 참여한 한국인 목회자들은 이런 작업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이들 바램처럼 다른 번

역책자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연합교회의 삶, 신앙, 신학에 관한 또 다른 주제의 문서들이 교수들에 의해 선정되지 않고 한국인 목회자들과 연합교회 내 한국인 회원들이 주도해서 선택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나올 자료집에는 문서에 대한 소개와 해설부분에도 한국인 참가자들의 관점을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약한 신앙형성의 시대를 사는 이때에, 함께 작업했던 한국인 목회자들은 연합교회가 총회와 연회, 노회, 개교회 등에서 교회 신앙교육에 대한 집중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연합교회가 태동하던 초기에 중심이 되었던 개신교의 자원봉사체제가 끝나고, 캐나다 사회가 종교적 가치와 제도로부터 분리되고 문화적으로 세속화(secularization) 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신앙형성을 위한 노력이 연합교회의 삶에서 특히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속화되는 동시에 갈수록 종교적으로 다원화되는 캐나다 사회에서, 더는 예전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문화적인 토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갈수록 혼란되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이나 다른 문화로부터 연합교회에 오게 된 구성원들은 연합교회의 교단 정체성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고, 이것을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교회가 계속해서 교인, 재정, 등 자원이 감소하는 현실을 겪을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형성의 중요성까지도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구성원들, 특별히 젊은이들과 새로 교회를 오는 기독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더 왕성한 작

업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두터운 신앙형성에 대한 소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이 다시 메아리로 울려 퍼져서 우리를 교회가 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에게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신앙교리문답(catechesis 20)을 할 때입니다.

후주

- [1] 감수자 주: 다문화multicultural와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인 intercultural 또는 interculturalism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intercultural ministry는 “문화간 목회”로, intercultural church 또는 interculturalism은 “문화상호적인 교회”, “문화상호주의”로 번역했다. 이것은 역자 개인이 선택한 표현으로, 학계에서 사용하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임을 밝힌다.
- [2] http://www.united-church.ca/files/general-council/gc40/2009_rop.pdf, pp.69-77.
- [3] <http://www.united-church.ca/files/general-council/gc40/calledtobechurch.pdf>© 2009 The United Church of Canada/L'Église Unie du Canada.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No Derivatives(by-nc-nd) Licenc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c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5/ca>. Any copy must include this notice.
- [4] Paul Bramadat and David Seljak, “결론”, 『캐나다의 기독교와 인종』*Christianity and Ethnicity in Canada*, edited by Paul Bramadat and David Seljak(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8), 421.
- [5] “Joint Report on Church Union: Historical Statement,” UCC Proceedings, GC 1, pp. 57-62.

- [6] "Election of Moderator," UCC Proceedings, GC 1, pp. 37-38.
- [7] Neil Semple, 『주님의 통치』*The Lord's Dominion*(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6), 439.
- [8] 연합교회 회의록 Record of Proceedings, GC37, 2000, 191.
- [9] www.united-church.ca/beliefs/statements/songfaith
- [10] J.N.D. Kelly, 『초기 기독교 신조들』*Early Christian Creeds*, 3rd edition(New York: Continuum, 1972/2006), 131.
- [11] 후에 믿음의 노래로 채택된 신앙선언을 초안하도록 제안 할 당시에 "우리 교회 내의 다양성"과 "다원주의적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인정하는 선언서가 되도록 위임했다: 연합교회 회의록 Record of Proceedings, GC37, 2000, 191.
- [12] Gerd Theissen and Annette Merz, 『역사적 예수』*The Historical Jesus*(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8), 466-67.
- [13] "Intercultural Ministries: Living into Transformation" www.gc41.ca/sites/default/files/intercultural-ministries.pdf
- [14] 앞에서 발췌, 번역된 "문화간 목회: 변화 속에서 살아가기 Intercultural Ministries: Living into Transformation" 150쪽
- [15] 연합교회 회의록 Record of Proceedings GC41, 2012, 147.
- [16] 위의 책, 145-46.
- [17] 연합교회 회의록 Record of Proceedings GC1, 1925, 38.
- [18] Charles Taylor, "정체성의 공간 함께 나누기 Sharing Identity Space," in 퀘벡-캐나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Quebec-Canada: What is the Path Ahead?*, edited by John Trent et al., (Ottawa: University Press of Ottawa, 1996), 122.

- [19] Mai-Anh Le Tran, “이야기 삶, 이야기 신앙: 현대 기독교 종교 교육을 위한 ‘유기적인 혼종성’ Narrative Lives, Narrative Faith: ‘Organic Hybridity’ for Contemporary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105:2 (2010): 190.
- [20] Brett P. Webb-Mitchell, 『그리스도의 몸짓: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기』 *Christly Gestures: Learning to B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 2003), 156. 이 책에서 저자는 신앙교리문답 catechesis의 기원이 “들려준다” to make hear, “다시 울려퍼지다” to re-sound again 또는 “메아리 치다” echo again는 뜻의 그리스어 katecheo에서 왔다고 설명했다.